

“AI 중심 투자 성과 가시화” vs “구조조정으로 체질개선”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2분기 ‘호실적’ 전망

네이버, 검색·쇼핑·콘텐츠 연결 선제적 비용 집행… 투자 효과 ‘톡톡’ ‘N 배송’ 확대, AIDC 구축 계획 공개 카카오, 비핵심 사업 정리 등 재편 두나무 지분 매각해 투자 재원 마련 AI, 아직 핵심 수익 성과 초기 단계



네이버.

두 회사 모두 호실적이 예상되지만, 네이버는 투자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 카카오는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개선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 AI·커머스·인프라… 성장에 베틀한 네이버

네이버는 올해 들어 AI를 중심으로 검색과 쇼핑, 콘텐츠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GPU 등 인프라 투자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송 혜택 확대, 스포츠 콘텐츠 확보 등 미래 사업을 위한 선제적 비용 집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효과는 서비스 곳곳에서나



카카오.

/AI로 생성한 이미지

타나고 있다. 지난달 정식 출시한 ‘AI탭’은 베타 서비스 기간 누적 이용자 400만명을 돌파하며 AI 검색의 새로운 진입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달 21일부터는 생성형 검색 결과인 ‘AI브리핑’에도 광고가 도입된다. 기존 검색 광고를 AI 환경으로 확장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서는 것이다.

검색과 쇼핑도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네이버는 CJ대한통운, 한진 등과 협력해 오늘배송·내일배송·일요배송·새벽배송을 아우르는 ‘N배송’을 확대하고 있다. AI 검색에서 상품 탐색, 구매, 배송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여기에 AI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공

개하며 AI 서비스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AI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해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 성장 과제 남은 카카오

카카오는 네이버와 달리 사업 효율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수년간 추진했던 계열사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포털 ‘다음’ 분사를 비롯해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비용 절감 효과가 2분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투자 재원도 마련했다. 카카오는 최근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을 매각해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으며, 이를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낼지가 과제라는 평가도 나온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챗GPT 포카카오’와자

체 AI 모델 ‘카나니’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AI가 광고와 커머스 등 핵심 수익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 하반기 승부는 ‘AI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는 공격적인 AI 투자가 실제 광고와 쇼핑 매출 증가로 이어져야 하고, 카카오는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AI 신사업의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

결국 생성형 AI 경쟁의 승부는 더 많은 답변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 AI가 이용자를 검색에서 쇼핑과 예약, 결제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를 새로운 매출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는 단기 이익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AI 생태계를 선점하는 전략을 선택했고, 카카오는 체질 개선을 통해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AI로 악성메일 3단계 필터링한다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 선택 ‘One-뷰’로 보안 업무 효율성 ↑ AI·APT 결합 이메일 보안 CSAP 인증

KT가 공공 이메일 보안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로 랜섬웨어, 피싱메일 등 사이버 위협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탐지·차단한다. 주요 고객은 공기업, 국립대학교 등이다.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는 악성 메일을 정교하게 식별·차단하기 위해 스팸 차단, AI 분석,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 등 3단계 필터링 체계를 거쳐 정상적인 메일만 안전하게 전달한다.

또 APT 단계에서 분석 엔진을 최대 3종을 제공한다. 분석은 대부분 1분 이내에 완료되고 이메일 수신 지연을 최소화한다. 현재 AI 학습과 보안 고도화를 통해 97% 이상의 악성메일 탐지 정확도를 유



KT 직원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형 AI 메일보안’ 서비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T

지하고 있다.

보안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One-뷰’ 기능도 제공한다. 한 화면에서 AI 분석과 탐지 기술을 통해 확인한 악성 행위 발생 내역, 위험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CSAP)을 획득했다. 이는 AI와 APT 기술을

결합한 이메일 보안 서비스 중 국내 최초 CSAP 인증 사례다.

공공기관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자 없이 디지털 전환과 보안 강화를 동시에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공공 부문에서 이메일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 msjo@

LG헬로비전 트로트 예능 한자리에

LG헬로비전은 트로트 콘텐츠 월 정액 상품 ‘트로트조이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트로트 경연 예능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전편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트로트 관련 음악·공연·예능과 미스트롯 포유 등 파생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했다. 현재 방영중인 최신 프로그램은 본 방송 일주일 후부터 전용관에 순차적으로 올라간다.

시니어층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게 특징이다. VOD 메뉴에서 간단히 가입하고 전용 편성관 채널 131번에서 만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SKT, 해외여행 고객 대상 T로밍 프로모션

2030세대 첫 로밍 이용 시 70% 할인 YT 요금제 이용 시 16GB 데이터 제공

SK텔레콤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T로밍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30세대 중 로밍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7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986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생한 고객은 해외 로밍 요금제 ‘바로 YT 4GB 요금제’를 선택하면 87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바로 요금제 또는 바로 YT 요금제 4종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6GB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가 소진된 이후에도 최대 1Mbps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로 YT 요금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T 멤버십 ‘클럽 T 로밍’으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데이터 1GB를 무료 충전과 함께 제휴사 혜택을 통해 귀국 후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로밍 데이터 5GB를 기준으로 체감 요금은 3700원까지 낮아진다.

또 가족 단위 여행객은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함께 쓸 수 있다. 가족 로밍 추가 요금은 3000원이다. /조민선 기자

그라비티, 공동대표 체제로 경쟁력 강화

박현철·기타무라 요시노리 대표 선임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가 공동대표 체제 전환을 계기로 본사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라비티는 올해 3월 박현철 대표와 기타무라 요시노리 대표를 공동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박 대표는 한국 본사의 개발·운영과 조직 운영, 인재 관리 등을 총괄하고, 기타무라 대표는 글로벌 사업 전략과 IP 전략, 신사업, 해외 그룹사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번 체제 전환은 사업 영역 확대와 경영 과제 고도화에 대응해 각 대표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그라비티는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라그나로크’를 중심으로 게임뿐 아니라 M D, 전시, 음악회, 애니메이션 등 원소스 멀티유즈(OSMU)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작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올해 서비스 24주년을 맞았다.

올해 들어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대만·홍콩·마카오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오픈월드 MMORPG ‘RO선경전설: 세계지려’, 로그라이크 배틀로얄 모바일 RPG ‘라그나로크 엔드리스 트레일즈’, HTML5 기반 방치형 MMORPG ‘라그나로크: 트와이라이트’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선보이며 IP 확장에 나섰다.

콘솔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라그나로크 콘솔 프로젝트’의 공식 스팀 페이지를 공개했으며, 애니메이션 ‘라그나로크 몬스터 마법 대소동!’은 카툰 네트워크 코리아 TV 채널 톱10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등 콘텐츠 사업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올해를 중장기 사업 비전인 ‘라그나로크 허브’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대형 신작 출시, 신규 장르 개척 등을 통해 IP 경쟁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SK텔링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확장

한국도로공사에 공급

SK텔링크는 한국도로공사에 저궤도 위성통신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 인프라는 터널과 산간 구간 등 음영 지역과 재난 발생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휘·상황 공유 체계가 중요하다. 이런 환경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은 현장과 상황실 간 연결성을 보완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SK텔링크는 도로·교통 인프라에 위성 통신을 최초 적용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10개 지역본부에 초도 구축을 마쳤다. 이동형 스타링크 단말을 설치해 호우·산불·지진 등으로 지상

통신망 장애가 발생하거나 통신 음영지역에서 긴급 대응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향후 재난 대응 환경에서 안전성과 활용성을 검증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링크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전력공사, 스타링크코리아와 저궤도 위성통신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경쟁력은 운영·보안·컨설팅을 결합한 통합 운영 모델이다. 발주 기관의 보안 정책에 맞춰 단말 구성과 설치 기술 지원을 지원한다. 또 양자암호 기반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운영 안정성과 보안 역량도 확보했다. /조민선 기자